
= 2019 광명시 · 의왕시 북유럽 3개국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광명시의회

목 차

1. 연수개요 및 목적	1
2. 연수참가자 명단	2
3. 연수코스	3
4. 연수 주요일정	4
5. 연수국가 소개	5
6. 기관방문 결과	
1) 노르웨이 베르겐 사회복지기관	8
2) 스웨덴 스톡홀름 노인요양원	14
3) 핀란드 에스포시 가족사회부서	17
4) 핀란드 카라사타마 도시	25
7. 공공도서관 방문	
1) 노르웨이 다이크만스케 시립도서관	27
2) 스웨덴 스톡홀름 공공도서관	29
3) 핀란드 헬싱키 중앙도서관	30
8. 시설 견학	
1) 빙하박물관	31
2) 릴레함메르 스키전망대	32
3) 오슬로 시청 및 시의회 청사	33
4) 바이킹 배 박물관	34
5) 바사호 박물관	35
6) 스톡홀름 시청사 및 시의회	36
7) 암석교회	37
8) 원로원 광장	38
9) 시벨리우스 공원	39
9. 연수결과 및 시사점	40
10. 출장을 마치며(개인보고서)	
1) 조미수 의장	44
2) 이형덕 부의장	48
3) 한주원 의원	52

2019 광명시·의왕시의회 북유럽 3개국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I. 연수개요 및 목적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9. 08. 7. ~ 08. 16. (8박10일)
- 방문국가 :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참석인원 : 12명
 - 광명시(6명) : 의원 3명, 직원 3명
 - 의왕시(6명) : 의원 3명, 직원 3명

연수 목적

- 복지제도가 정착된 선진국가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복지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 발굴
-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비교시찰
- 지역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자상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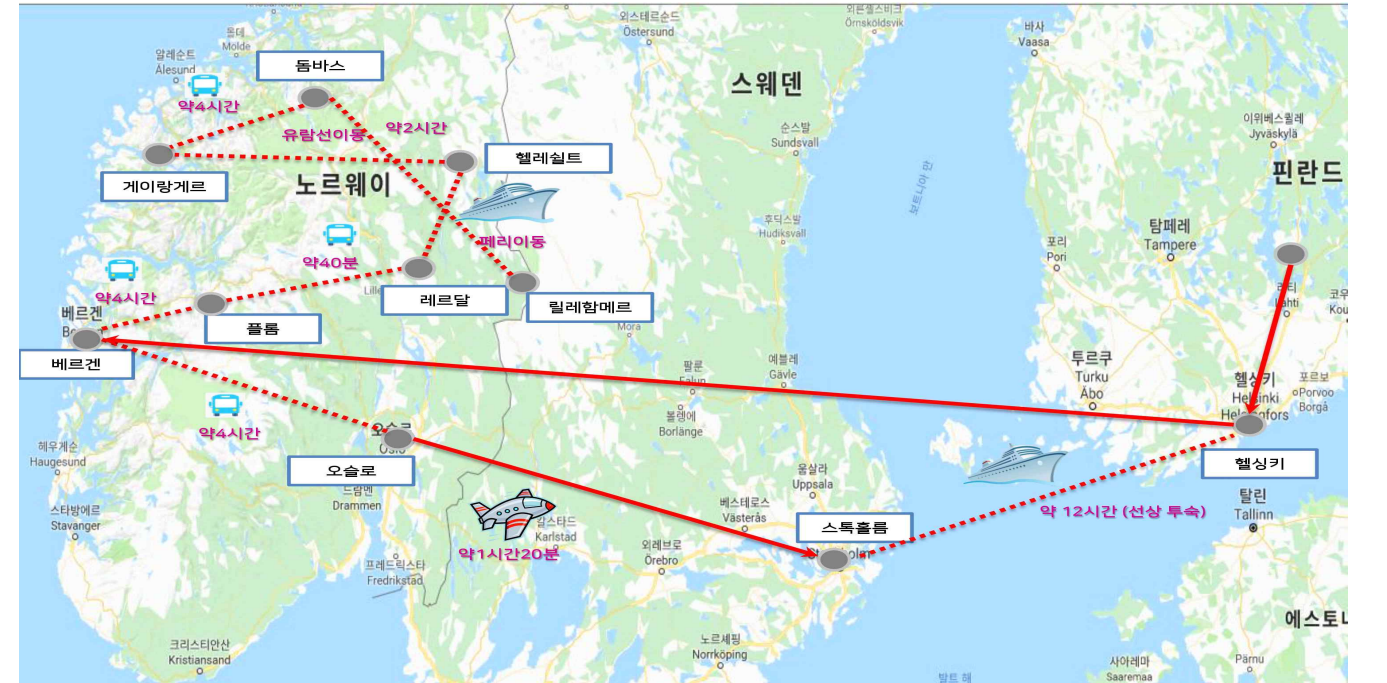
중점 연수사항

-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교육 등 복지정책
- 고령화 사회 정책 개발 및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
- 의회제도 및 친환경 도시 개발시책 등

II. **연수 참가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성 명	비 고
1	광 명 시	의 장	조 미 수	
2	광 명 시	부의장	이 형 덕	
3	광 명 시	의 원	한 주 원	
4	의 왕 시	의 장	윤 미 근	
5	의 왕 시	의 원	이 랑 이	
6	의 왕 시	의 원	윤 미 경	
7	광 명 시	의정팀장	이 상 진	수 행
8	광 명 시	노인복지팀장	최 준 희	수 행
9	광 명 시	주무관	김 재 석	수 행
10	의 왕 시	주무관	이 수 인	수 행
11	의 왕 시	주무관	문 제 중	수 행
12	의 왕 시	주무관	이 동 희	수 행

III. 연수 코스



IV. 연수 주요 일정표

날 짜	연수지역	교통편	시 간	연 수 내 용
1일차 8.7.(일)	인천 헬싱키 베르겐	AY042 AY941 전용차량	10:20 15:40 16:35	· 이동(인천국제공항 → 헬싱키) · 이동(헬싱키 → 베르겐) · 베르겐 도착
2일차 8.8.(목)	베르겐 레르달	전용차량	09:30 18:00	○ KirKens Bymisjon Bergen(비미션 사회복지기관) ○ 베르겐 보겐항구와 광장, 어시장, 플롬~미르달 구간 열차인 플로라인 체험 후 레르달 이동 ○ 레르달 도착
3일차 8.9.(금)	레르달 피얼란드 돔바스	전용차량	09:00 16:00	○ 빙하박물관, 게이랑레르 피요르드 ○ 헬레쉴트-게이랑에르 피요르드 유람선 ○ 돔바스 이동
4일차 8.10.(토)	돔바스 릴레함메르 오슬로	전용차량	09:00 18:00	○ 오슬로 시립도서관 방문 ○ 릴레함메르 스키전망대 조망 ○ 오슬로 변화가인 카를요한 거리 (오슬로 트램탐승)
5일차 8.11.(일)	오슬로	전용차량	09:00 18:00	○ 바이킹 배 박물관, 비겔란 조각공원 ○ 오슬로시청 방문 및 시내 투어
6일차 8.12.(월)	오슬로 스톡홀름	SK 480 전용차량	08:35 09:40 18:00	○ 이동(오슬로 → 스톡홀름) ○ Aldreomsorg Stora Skondal (스톡홀름 노인요양원) 방문 ○ 바사호 박물관
7일차 8.13.(화)	스톡홀름	전용차량 실지라인(크루즈)	09:00 16:45	○ 구시가지 감라스탄 ○ 노벨상 수상식이 매년 열리는 시청사 방문 ○ 이동(스톡홀름 → 헬싱키)
8일차 8.14.(수)	헬싱키	전용차량	09:55 18:00	○ 헬싱키 스마트도시재생 도시 칼라사타마 방문 ○ 각종 국가의 종료행사가 열리는 원로원 과장 ○ 마켓 광장
9일차 8.15.(목)	헬싱키 (핀란드)	전용차량 AY041	10:00 17:30	○ 시벨리우스 공원, 암석교회 ○ 헬싱키 공항 → 인천공항 출발
10일차 8.16.(금)	인 천		08:20	○ 인천공항 도착

V.

연수국가 소개

1. 노르웨이(Norway)

가. 기본현황

- 수 도 : 오슬로(50만명)
- 면 적 : 3,851만 7,800ha
- 통 화 : 노르웨이 크로네
- 인 구 : 540만명
- 국내총생산 : 3,988억 USD(1인당 국민소득 82,372 USD)
- 공식 언어 : 노르웨이어

나. 특 징

- 정식 명칭은 노르웨이왕국(Kingdom of Norway)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25,148km이다. 면적은 32만 3802km², 인구는 520만 7689명(2015년 현재) 수도는 오슬로(Oslo)이다.
- 인종은 대부분이 게르만족인 노르웨이인이며, 그밖에도 사미족이 있다. 언어는 노르웨이어이며, 전인구의 94%가 복음루터교를 신봉하여 헌법상 국교로 지정하였으나, 2017년 1월 종교간 형평성을 명목으로 국교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된다.
- 노르웨이는 전국토의 3%만이 경작 가능하여 농업생산은 미미하나, 해운업 및 어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수력발전을 이용한 금속·제철·목재·제지·조선·전기공업 등이 주종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영국과 공동개발한 북해유전에서 1975년부터 시작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은 노르웨이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이웃나라인 스웨덴·덴마크와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로, 1971년에 완성된 국민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전국민에 대하여 무료 교육제도·의료혜택·실업수당·노후연금 등의 완벽한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스웨덴 (Sweden)

가. 기본현황

- 수 도 : 스톡홀름
- 면 적 : 4474만 3천ha
- 인 구 : 1,005만명
- 통 화 : 스웨덴 크로나
- 국내총생산 : 5,380억 USD (1인당국민소득 53,867 USD)
- 공식언어 : 스웨덴어

나. 특 징

- 정식명칭은 스웨덴왕국[Kingdom of Sweden(영), Konungariket Sverige(스)]이다. 서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등뼈에 해당하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국경선으로 하여 **노르웨이**와, 북동쪽으로는 보트니아만으로 흘러드는 토르네(Torne) 강을 경계로 핀란드와 접한다.
- 동쪽으로 보트니아만(灣) 및 발트해(海)를 너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마주하며, 남쪽은 카테가트(Kattegat) 해협과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와 마주한다.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활·문화 수준이 매우 높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로서, 전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실업수당·무료 교육·노후연금 등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3. 핀란드 (Finland)

가. 기본현황

- 수 도 : 헬싱키
- 면 적 : 3,384만 4,600ha
- 인 구 : 556만명
- 국내총생산 : 2,518억 USD (1인당 국민소득 50,068 USD)
- 통 화 : 유로
- 공식 언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나. 특 징

- 정식 명칭은 핀란드공화국(Republic of Finland)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1,250km이다. 면적은 33만 8145km², 인구는 약 552만(2017년 11월 기준), 수도는 헬싱키(Helsinki)이다.
- 인구의 93%가 핀란드인이며, 스웨덴인이 6%이다. 언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사용되고, 종교는 복음루터교가 89%, 기타 러시아정교가 신봉된다.
- 국토 전체의 3분의 1이 북극권에 속하며, 전국토의 72%가 침엽수림으로 되어 있어 임산업이 경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의료혜택·실업수당·평생무상교육·노후연금 등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택하고 있다.

VI.

방 문 기 관

1. 베르겐 사회복지기관(비미션)

1) 방문일시 : 2019. 8. 8.(목) 10:00 ~ 11:30

2) 브리핑 : 아이엘 홀튼

- 주 소 : Kong Oscarsgate 54
- 홈페이지 : <http://kirkensbymisjon.no>

3) 브리핑 주요내용(기관소개 및 주요사업)

- 키르게시 비미션은 비영리단체로 도시선교회입니다. 이 단체는 1855년에 설립되어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노르웨이에는 2,000명 정도 직원이 있고 베르겐에는 110명이 있습니다.
- 비미션 단체는 노르웨이 전체에 있는데, 노르웨이는 인구 10,000명 이상이면 큰 도시입니다. 비미션이 가지는 가치관을 요약하면 단체 혹은 집단,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혼자 있는 것은 작게 하고 같이 한다”는 비미션의 가장 기초적인 운영의 방법입니다.
- 비미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혼자있지 말고 초대해서 같이 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있기 보다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마약이나 알콜중독자 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아주 힘없는 아동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소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 비미션의 비전 또는 핵심 목적은 3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비미션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환경이 안 좋거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바로 응급처치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으나, 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데까지는 일을 하지 못 했습니다.

- 하지만 지난10년 20년 전부터 비미션은 점차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일 좋은 결과는 처럼 출발부터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면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방지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경제적으로만 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 비미션에서는 두 가지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자기 혼자만 그러고 아무도 자기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혹은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비미션에서 찾아내어 공식 자료화 하여 공공기관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우선 순위를 갖도록 합니다.
-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기 어려움을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하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미션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높은데 있는 정치인들한테 자기의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비미션은 150년 동안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 노르웨이는 일반적으로 알콜이나 마약중독자들은 일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면 먼저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비미션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독을 끊은 사람한테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중독을 끊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 결과 많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날 할 목표를 정해서 한 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유로는 중독자를 수동적으로 돌봐야 되는 돈이 많은데 이런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정부의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미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주변 상권에서 활동을 지원합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중독자가 줄어들어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이 사업에 정부에서 3/2를 지원하고 주위 상권에서 3/1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베르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보스시에서 10명의 중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직원 2명이 관리합니다.
- 비미션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누구나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으며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대금을 2명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으며, 비미션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4) 질의응답

-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
 - 개방형 유치원이라고 해서 0세~6세까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유치원이라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형유치원은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임.
 - 유치원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무조건 교육비나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0세 ~3세까지 아이들은 부모와 집에서 있는 것을 장려함. 그래서 정부에서 0세~2세까지 2년동안 정부에서 엑스트라를 지원해 줌. 부모들은 정부에서 한달에 7,500 크로나(한화 약 1백만원)를 지원받은 부모들은 직장으로 가지 않고 개방형 유치원에 오고 있음. 개방형유치원에는 노르웨이 가족 50%, 외국인 가족 50%가 이용.
 - 개방형유치원이나 밤스히에라는 4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이 오는 두 곳 모두 부모들이 자기아이들을 책임져야 함.
 - 부모들에게 지도와 카운셀링이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부모가 100% 책임을 지도록 규범이 되어 있음.

- 비미션은 보통 2명의 직원이 일을 하며, 자원봉사자와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
- 저희 직원들은 많은 시간을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은 카운슬링하는 것에 집중 할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르웨이에서 은퇴하신 분들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이런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고 있음.
- 노르웨이는 보통 아이들이 4살부터 12살까지는 전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는 4시부터 문을 열고 있음
- 여름방학에 모든 노르웨이 아이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데 갈 수 없는 경우 비미션에서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데리고 가고 있음. 겨울철에는 스키투어를 할 수 있는 장소

○ 방학기간 프로그램 참가비 비용 부담은 ?

- 이용자 부담은 두 곳 다 하루에 5,000원 정도 임.

○ 1회에 드는 비용인지 ?

- 네. 4살부터 12살까지 일하는 부서는 몇 명의 가족이든 하루에 25크로나 더 저렴함. 왜냐하면, 인컴이 낮은 가족들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임.

○ 프로그램 이용시 참조하는 사람 위주로 기록하지는, 아니면 발굴도 하는지, 모집기간이 있는지 ?

- 모든 부서의 아이들과 학부모와 여성분들 유스그룹 모두 다 원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올 수 있음. 인터넷에 요일별로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공개, 미리 예약은 받지 않음. 개방형 유치원 같은 경우 두 곳을 운영하는데 한 곳은 25명이 정원임. 국가에서 면적에 비례해서 수용인원을 결정. 순서대로 25명이 차면 문을 닫음. 개방형유치원을 찾은 국가 통계 및 아이들 통계를 내는데 한 해에는 76개국의 사람들이 이용.

- 일주일에 몇 명의 아이들이 왔는지 등 반년마다 통계내고 있음.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아이수가 굉장히 중요함. 성탄절을 기준으로 큰 회사에서 저희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함.
- 비미션은 정부의 위탁기관인지 ? 정부의 지원을 받는지 ?
 - 비영리 단체로 국가가 관여하지 않음.
- 비미션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지원을 받는 것이지 ?
 - 프로그램이 통과가 되면 지원됨.
- 베르겐시 자체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
 -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50:50 정도 시와 협력해서 일하는 부분도 있음.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음. 예를 들어 부모들이 아이들과 스키 또는 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 장비가 필요한데 노르웨이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임.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러한 장비를 비미션에서 시 모든 아이들한테 공짜로 빌려갈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함.
- 실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받는지 ?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통계적인 숫자는 보고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정부에서 비미션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
 - 있습니다. 비미션에서도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합니다.
- 정부관계자와 자주 미팅을 하는지 ?
 - 자주 만나지는 않고 거의 엠포스나 이런 식으로 미팅이 있음
-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시청에 계시는 분들보다 적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떨지 ?
 - 노르웨이도 시청에서 일하는 분보다 조금 적음. 자격 기준으로 되어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 자원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지 ?

-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는 1년간 계약을 맺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시간이 되어 직업을 찾을 때 경력을 써 주고 있음.

○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부나 저희 같은 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

- 우리 사회의 선진화 척도는 이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약자들을 돕는 사회가 선진화 되고 더 좋은 사회입니다.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스토라 스콘달노인요양원

1) 방문일시 : 2019. 8. 12.(월) 09:50 ~ 11:30

2) 브리핑 : 이븐드에바 이브

▪주 소 : Herbert Widmansväg 7, 128 64 Sköndal

▪홈페이지 : <http://storaskondal.se/>

3) 브리핑 주요내용(기관소개 및 주요사업)

- 스톡홀름시에는 14개의 자치구가 있음. 이 기관은 코바른 코덴이라고 하는 구리가든입니다. 뱔링비커룬 뱔링미구에 속해 있고 174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174개 중에 1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거주합니다.
- 16개의 아파트에는 8개는 치매, 8개는 외상이나 그런 것으로 아프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단기간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 16개의 아파트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무를 기간이 필요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홈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 합니다.
- 치매라든가 외상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으로 잘 거동을 못 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3종류의 주거인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여기는 거의 다 65세가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65세이상 100살까지 있습니다. 직원은 24시간 간호원 그리고 의사들이 자주 방문해서 진찰을 하고 있고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16개 아파트에는 병치료 엑스트라 케어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고 혼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 여기 시설은 잠시 치료 목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 주거지로 갈 때까지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보조기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품을 주어서 구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온 환자들이 머무는 기간을 정하는데도

항상 사회복지사와 간호원이 함께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합니다.

- 치매의 경우 집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있거나 가족 중에 1명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 기간이 2주 또는 한달 걸린다면, 치매환자는 이 시설에 머물수 있습니다.
- 이 시설에는 16개의 아파트 밖에 없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 이용자가 많으면 스톡홀름시의 다른 구에 있는 시설에 자리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 뮈링비라는 구에 사는 사람은 소득세(일반인 30%)를 내면 노인복지, 아동복지는 구에서 해결합니다.

4) 질의응답

- 한국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실무자가 진단을 내리는지 ?
 - 여기는 구지요. 병원은 주정부입니다. 책임이 틀립니다. 의사가 이 사람이 얼마간에 치료를 필요로 한다. 치료가 끝나고 재활기관이라든가 케어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의사 3인이 만나서 인품을 주고 받으면서 결정합니다.
- 운영비와 간호사 인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
 - 29명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7명의 보조 간호원들이 7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고 2시부터 6시까지는 6명의 보조 간호원이 일을 하고 그 외에는 2명이 합니다. 29명 치매노인 가운데 단기로 오는 분들이 8명인 경우는 간호원이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 있습니다.
- 뮈링구에 노인복지 예산이 1인당 얼마정도 되는지 ?
 - 잠깐식 머무르는 사람은 1인당 2,700크로나(한화 351,000원),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2,060크로나(한화 267,800원), 치매가 아닌 경우는 1,960크로나(한화 254,800원)입니다.

- 단기든 장기든 여기에 입소하신 치료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
 - 여기는 매일 액티비티하는 넓은 방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빙고 아니면 카드놀이나 간단한 피트니스, 8월 여름에는 바다가재를 먹는, 그리고 동지축제 하지 축제할 때 모여서 무언가를 합니다.
- 병명 확인을 할 때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정해져 있는 멤버인데, 자치시에서 고용한 사람인지 ?
 - 구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전부 공무원으로 구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 집에서 보호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요 ?
 - 잘은 모르겠지만, 노인 홈에 들어온 사람보다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 여기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갖고 계시는 재산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
 -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례는 친척분들이 와서 해야 되고, 친척들이 없으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후견인들이 다 처리해 줍니다. 후견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 종교단체나 사단법인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지 ?
 -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전통이 오래된 곳도 있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줍니다.
- 자원봉사자들이 많은지요 ?
 - 자원봉사의 전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핀란드 Espoo 시청 가족사회부서

1) 방문일시 : 2019. 8. 15.(목) 10:00

2) 브리핑 : 아로라, 까띠아

▪주 소 : Siltakatu 11, Espoon keskus

▪홈페이지 : www.espoo.fi/fi-FI

3) 브리핑 주요내용(기관소개 및 주요사업)

○ 에스포시 가족복지 서비스는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동보호임. 아동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법도 제정되어 있음. 둘째는 가족정책임.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호자와 격리시켜 보호하는데 대한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 셋째는 가족쇼셜워크임. 저소득층 가족이라든지이혼 가정을 케어해 주는 활동을 하는 부서임. 에스포시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족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아이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가정활동을 펼칩니다.

○ 아동가족서비스는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음.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에는 에스포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건택을 취할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해서 컨택 할 수도 있고, 상담소나 학교, 육아소를 통해서도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또는 보건소에서 아이의 보호자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아동가족복지부나 아동보호상담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아동가족서비스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팀은 아동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가족에게 필요로 하는지를 전화상담이나 가족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합니다.

- 에스포시에서는 가족전문 상담사를 가족마다 1명의 전담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사가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 등을 전산에 다 보존한다고 합니다.
- 가족쇼셜워크는 가족의 일상생활을 서포트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의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등 일상생활에서 약간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쇼셜워크 서비스를 받습니다.
- 가족쇼셜워크 대상은 가족 전체입니다. 부모를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달라서 나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에스포시에 있는 만 0세에서 만 17세까지 자녀를 갖고 있는 가족이면 가족쇼셜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도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몇 명을 투여할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족과 심각하지 않은 가족을 레벨단계로 나누어 단계에 따라 가족쇼셜워크를 하는 직원의 수가 결정됩니다.
- 가족쇼셜워크는 가정에 따라 매일 또는 일주일, 한달에 한번 연락을 하고 있고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몇 명이고 아이가 몇 명인지 그 가족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족쇼셜워크 서비스는 무료로 이루어 집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돈이 드는 서비스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엄마 대신에 가족쇼셜워커가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아이를 돌봐주거나 하는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외에도 엄마가 공부하고 싶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유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 가족상담지원도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반항이 심해지는 경우 부모님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ADHD를 겪는 아이들이 증가 추세로 ADHD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경우 부모를 서포트 하는게 중점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 또한, 경험이 많은 부모들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는 말을 못 하니까 갓난아이거나 영유아일 때 엄마는 아기를 잘 알아야.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이런 점에서 아이와 엄마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서포트를 해 줍니다. 가족전담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 무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제한을 두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아이의 교육, 아이의 복지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보호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쳤을 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 싱글마더분들 같은 경우 소득이 적다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알콜올 중독, 마약 등 리스크들이 싱글마더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 가정방문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모든 형태의 서비스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을 철저히 검증을 한 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를 결정합니다.

4) 질의응답

- 시의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
 - 에스포시 전체 복지예산 중 12%를 가정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 위기의 일상적인 가정도 전담이 있는지 ?
 -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상관없이 한 명씩 꼭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를 둡니다.
-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주로 평균을 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제일 많은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시가 바라는 성과 만족도 개인이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는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
 -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커지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전방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전에 이런 부모들을 케어하여 사전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전담쇼셜워커가 모든 가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가정에만 전담쇼셜워커가 있는지 ?
 - 서비스를 받는 모든 가족은 한 명씩 전담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일수도 있고 상담사일 경우도 있습니다.
- 대다수의 국가에서 학교폭력을 우려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학교 폭력이 다른 나라 보다 낮은지 ?
 - 핀란드도 학교폭력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왕따를 당하면 집에서 분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분풀이를 하면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가족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을 줍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전문가 팀이 따로 있어 연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돌봐준다고 했는데, 요리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있는지 ?
 - 그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청소와 요리서비스는 개인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했을 경우에 엄마도 아빠도 아이를 맡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 법적으로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싫어할 경우에는 다른 가정 또는 고아원, 육아시설에 맡깁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정 케이스가 몇 개인지,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하는 케이스는 몇 개인지, 서비스는 가구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서비스를 원치 않는 가정에 강제성을 두고 있는지 ?
 - 사회복지사 1명이 약 50가정, 필요한 경우 상담사 선생님도 함께 합니다. 서비스를 금방 마치는 경우도 있고 길게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 정도입니다.
 -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전화 통화하고 한번 만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쇼셜워크 자체는 강제성이 없는데 강제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동보호 아이가 폭력을 당한다든지 학대를 당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과 아동보호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쇼셜워크를 받는 경우에는 크게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가족들이 대부분이라 사전방지 차원에서 가족쇼셜워크를 받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동폭력이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핀란드는 2015년 8월 1일 이스탄불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이스탄불 조약은 여성이 받는 폭력에 관한 조항과 가정폭력예방과, 가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가정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핀란드에는 총 30개의 가정폭력쉼터 있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쉼터는 인구 수당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만이 받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 가해자들도 서비스를 받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스포시에 오마틸라 라는 부서가 신설 되었습니다.
 - 오마틸라에서는 여성분들의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케어합니다. 가정폭력에 있어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심적인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인데, 근무시간 외에도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원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거나 SNS, 문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학교 또는 보건소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 것이 인지될 경우에는 무조건 오마틸라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마틸라에는 3명의 상담사와 1명의 리더가 상주하고 있으며, 1명당 30가정을 전담합니다. 오마틸라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 등을 구비한 집을 갖고 있는데, 가정폭력쉼터라고 합니다. 이용은 혼자 올 수 도 있고 아이 또는 애완동물과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는 무료인데 음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보통 두 달 정도 사용합니다.
- 쉼터에 갔던 사람들이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시달리는데 여기서 두 달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지 ?
-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릴 때 폭력을 당한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폭력을 당하든지 부부관계 또는 이성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쉼터에서 나가서 새로 집을 구해서 생활하는데

새로 이사한 곳에서 폭력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아동 같은 경우 가족쉼터에서 케어를 받는데 상담사들이 함께 케어를 해 주는지 ?
 - 아이가 직접 폭력을 당하지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다투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거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케어를 하고 아동보호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사도 케어를 합니다.
- 오마필라는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
 - 경찰이 직접 오마필라에 사람을 데려오거나 연락을 합니다. 또한 오마필라에서 조사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 남성 가해자를 케어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인지요 ?
 - 에스포시에서 외주를 준 시민단체에서 합니다.
- 에스포시 오마필라에서 이 서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나 이런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지 ?
 - 에스포시에서는 오마필라 밖에 없습니다.



4. 핀란드 칼라사타마도시

1) 방문일시 : 2019. 8. 15.(목) 13:00

2) 주요내용

- 10년 전만 해도 버려진 항구였던 칼라사타마는 헬싱키시가 넘치는 도심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2010년 스마트 시티 개발에 나서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발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이 도시에는 5,000명의 주민과 기업의 각종 첨단 기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칼라사타마에는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전기도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런 것들보다 시민 중심의 개발 방식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리빙랩(Living Lab)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기술을 직접 시험해봅니다. 기업들은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기술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소호요아(Sohojoa)와 센서블4(Sensible 4), 공유공간 플랫폼 플렉시 스페이스(Flexi Space) 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주택가에는 고유의 공원이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가구마다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쓰레기 수거함은 없고 지하파이프로 연결된 중앙집중식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진공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설을 아파트 마다 설치했으며, 전자기로 작동을 합니다.
- 시 소유의 자전거를 30유로를 지불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마다 전기자동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Ⅶ.

공공도서관 방문

1. 노르웨이 다이크만스케 시립도서관

1) 방문일시 : 2019. 8. 10.(토) 10:00

2) 주요내용

다이크만스케 도서관은 노르웨이 장관 다이크만(1705~1780)의 저택에서 발견된 구약성서 등을 포함한 도서 6,000권의 기증을 바탕으로 1785년에 세워졌다. 현재 오슬로 전역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메인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오슬로 내의 18개 도서관 중에서 대표적인 중앙도서관이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용자를 맞이하는 봉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사서가 아니라 학위 공부 중이라는 봉사자는 입구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 있다가 도서관에 들어선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말로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최대한 알려준다. 2층에 올라가니 중앙은 3층까지 뿔 뿔려 있고 천장의 창을 통해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온다. 전면에 큰 벽화가 높이 걸려 있고 양쪽 벽면에는 2, 3층 높이의 서가에 책들이 뽁뽁이 꽂혀 있고 중앙에는 배의 흰 돛 모양으로 형상화된 특이한 구조물이 있다. 중앙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벽쪽으로는 쓰임새가 다른 작은 공간들이 여럿 있었다.

2층은 배의 돛을 형상화한 듯한 시설물과 그 사이 공간을 나누어 신문을 볼 수 있게 만든 공간과 3층 벽 사이에 만들어 놓은 1인용 의자 등이 있다. 아이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들도 많았다. 책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서비스하는 도서관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회시스템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2. 스웨덴 스톡홀름 공공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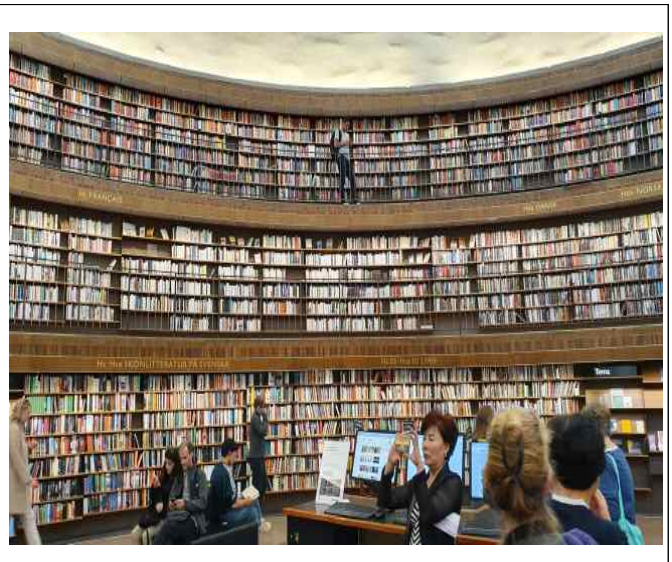
1) 방문일시 : 2019. 8. 12.(월) 14:00

2) 주요내용

군나르 아스플룬드(1885~1940년)의 건축은 고전주의 건축, 특히 프랑스의 건축가 에티엔-루이즈 불레와 클로드 니콜라 르두의 건축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불레와 르두는 거대한 사색으로 기억되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스톡홀름 천문대 언덕 주위의 문화 행정 구역의 일부로 건립된 아스플룬드의 스톡홀름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원통 형태이다. '상자'는 3층짜리 U자형 건물로, 그 파사드는 거대한 정문과 위층의 가지런히 도열한 창문 사이에서 가로로 나뉘어 있다. 그 위로는 독서실이 위치한 '원통'이 솟아오른다. 독서실은 로툰다에 이르는 내부 층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연마 끝에 순수한 기하학의 경지에 오른 주지주의의 저장소로 오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둥근 벽을 빙 둘러싼 서가는 원형의 지붕 조명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진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이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강조한 '인간 중심의 디자인'에 무게를 뒀다. 둥글게 디자인된 서고 덕분에 도서관 전체를 연결하는 동선이 줄어들어 책을 찾기 위한 수고가 덜하다. 도서관엔 장서 200여만 권이 보관되어 있고 지역 신문을 포함한 수십 종의 정기 간행물을 살펴볼 수 있다.



3. 핀란드 헬싱키 중앙도서관

1) 방문일시 : 2019. 8. 15.(목) 11:00

2) 주요내용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심장부인 칸 살라스키 광장(Kansalaistori square)에 위치한 오디 (Oodi)라는 이름을 가진 중앙도서관입니다. 2018년 12월에 오픈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인데요 일평균 방문자가 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서관이지만 근처의 헬싱키음악센터, 현대미술관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미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의 지식, 새로운 기술 및 이야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휴식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직선과 곡선을 갖춘 외관을 보여주고 인테리어 역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유리 외관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이야기 해주고 에너지 효율 또한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로비, 이벤트공간, 도서관, 카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직장, 활동, 학습등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3층은 Book Heaven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VIII.

시 설 견 학

1. 빙하 박물관

1) 방문일시 : 2019. 8. 9.(금)

2) 주요내용

노르웨이 서부 송노피오라네주(Sogn og Fjordane)의 피엘란(Fjærland)에 있는 박물관으로 1991년 5월 31일 개관했다. 요스테달브렌 국립공원(Jostedalbreen National Park)에 있으며, 빙하 및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스베레 펜(Sverre Fehn)이 설계하였으며, 1994년 유럽 박물관 포럼(EMF)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유럽박물관상(EMYA)'을 수상했다. 2007년 7월 19일에는 기후변화와 빙하 모니터링을 위한 기후전시관이 새롭게 개관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노르웨이의 유명 영화감독 이보 카프리노(Ivo Caprino)가 제작한 빙하와 관련된 20분 분량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긴 사각형 모양의 직선으로 조성된 전시관에는 4가지 카테고리에 24개의 테마를 가진 다양한 전시물이 구성되어 있다.

송네피오르(Sognefjord)의 지류인 피엘란피오르(Fjærlandsfjord)로 둘러싸인 주민수 300여 명의 작은 마을 피엘란(Fjærland)에 위치하고 있다. 요스테달브렌 국립공원 지역의 관광 중심지이며 국립공원 방문자센터를 겸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나머지 기간은 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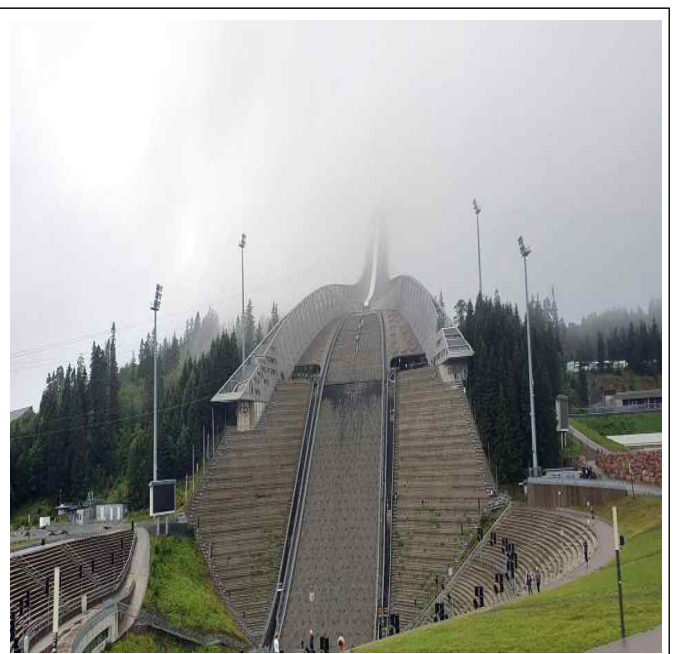


2. 릴레함메르 스키전망대

1) 방문일시 : 2019. 8. 10.(토)

2) 주요내용

릴레함메르(Lillehammer)는 노르웨이 남부 내륙의 오픈란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인구는 26,639명으로 오픈란 주의 주도이며, 1994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 곳이다. 이 지역은 내륙의 여러 산에 둘러싸여 있고, 여러 호수가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선사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나, 이곳의 공식적인 역사는 1390년에 시작된다. 교통의 발달과 함께 19세기 이후 내륙지대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스키를 즐기기에 적당한 기후조건으로 동계스포츠의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고,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여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다. 1994년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윤미 선수는 만 14세의 나이로 쇼트트랙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연소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으며, 노르웨이의 밴드 아하가 "Shapes That Go Together"를 불렀다. 대회 로고는 북유럽의 특징을 살려 오로라로 선정되었고 실제 대회 중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은 개막 5년 전부터 영구시설물의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경기에 꼭 필요한 시설만 건립하였고, 선수촌의 숙소, 화장실, 프레스센터 등은 조립식으로 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흑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스키 점프대만이 우두커니 남아있다.



3. 오슬로 시청 및 시의회 청사

1) 방문일시 : 2019. 8. 11.(일)

2) 주요내용

오슬로의 심벌이라 할 수 있는 시청사는 오슬로 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하여 건축한 것으로 오슬로 행정의 중추가 되는 곳이다.

1915년 오슬로의 시장이었던 Hieronymus HeyerdagI 은 오래된 오슬로 항구에 새로운 시청사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여 1920년 전국의 건축가들로부터 작품을 모집하였고 그 중 채택된 두 사람 Arnstein Arneberg와 Magmus Poulsson을 시켜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들이 계획하였던 건물 스케치는 1930년에서야 완성이 되어, 그 동안의 건축 양식의 변화가 시청사 건물 안에 녹아 있다.

1931년 공사가 착공되어 제 2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40~45년 동안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1950년 마침내 완성이 되었고 이때 있었던 취임식은 오슬로 시가 생긴지 900년이 되는 축하연이었다. 20여 년에 걸쳐 지어진 이 건물은 노르웨이의 역사·문화·산업화에서 얻은 모티브를 이용해 장식 되었다. 오슬로 시청사도 비슷한 운명을 지녔는데 도시의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 건축한 것이지만 전적으로 환영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슬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건물이 되었고 노르웨이의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담겨있는 의미 있는 건물이다.



4. 바이킹 배 박물관 (Vikinghuset)

1) 방문일시 : 2019. 8. 11.(일)

2) 주요내용

오슬로 피요르드에서 발견된 3척의 바이킹 배(오세베르그호, 고크스타호, 투네호)의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9세기초에 건조된 오세베르그호는 이중 가장 크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35명의 노젓는 사람과 돛을 이용해 항해하였던 이 배는 만들어진 지 50년 정도 사용된 후 오사 여왕의 관으로 사용되었다.

길이 30m, 최대 폭 6m의 이 배에는 각종 장식품, 부속용품, 가구류 등의 부장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고크스타호는 32명의 노젓는 사람과 돛으로 항해한 전형적인 바이킹 선으로 12두의 말과 6두의 개, 짐승머리로 장식된 침대, 3척의 보트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투네호는 배 밑바닥만이 발견되었는데, 원거리 항해용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배들의 이름은 발견된 지명을 따서 붙여졌다.



5. 바사호 박물관

1) 방문일시 : 2019. 8. 12.(월)

2) 주요내용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전함, 바사 왕가의 구스타프 2세가 재위하였던 1625년에 건조되어 1628년 8월 10일 처녀항해 때 침몰한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곳이다.

침몰한 이후 바닷속에 있던 바사호를 1956년 해양고고학자인 안데스 프란첸에 의해 발견돼 333년만인 1961년에 인양되었다. 1962년 임시 박물관에 있다가 1988년에 새로운 박물관으로 이전 1990년 바사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복원된 바사호는 수백여개의 조각상으로 웅장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원형의 98퍼센트가 보존되어 있다. 돛, 항해술, 배에 실제로 실렸던 물건들의 원형을 통해 17세기 초 스웨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목재로 만들어진 호화 전함이었지만 침몰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 지지 않고 있다. 바사 호는 총길이 69m, 최대폭 약 11.7m, 높이 52.2m, 배수량 1300t, 적재 대포 64문, 탑승 가능 인원 450명이다.



6. 스톡홀름 시청사 및 시의회

1) 방문일시 : 2019. 8. 13.(화)

2) 주요내용

스톡홀름 시청사는 라구날 오스트베리가 설계했는데, 800만 개의 벽돌과 1,900만 개의 금도금 모자이크를 사용하여 1923년에 완공했다고 한다. 스톡홀름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스톡홀름 시청사는 ㄱ자 형으로 시청사의 한쪽은 공무원이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시의회, 노벨상 시상 등 행사장 및 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의회는 어둡지만 넓고 개방된 구조에 2층의 스탠드는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은 시민들, 한쪽은 언론을 위한 자리이다. 모든 자리에는 이름표가 붙여져 있어 자신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

스톡홀름 정치의 중심지인 시청사는 매년 12월 10일 열리는 노벨상 만찬장으로도 유명 하며,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시청사는 시행정의 중심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제 업무는 시의 여러 곳에 분산된 지방자치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은 주로 시의회 회의나 행사에 이용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스웨덴은 중앙과 지방의 업무가 명확하며, 지방의회는 보육문제, 교육문제, 보건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7. 암석교회(템펠리아우키오, Temppeliaukion Kirkko)

1) 방문일시 : 2019. 8. 14.(수)

2) 주요내용

국립 박물관 서쪽 옆의 바위산 위에 세워진 교회로 바위를 자연스런 형태로 보존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설계를 응모한 끝에 티모와 투오모 수오말라이넨 형제의 작품이 선택되어 1969년에 완성된 만큼 건축 디자인이 돋보인다.

마치 지금까지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UFO와 같은 외관을 하고 있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현대건축물이다. 둥근 방사선 형의 지붕에 벽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에 대형 오르간과 천정 주변을 원형으로 잘라내어 만든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광선이 거친 바위에 부드럽게 비쳐, 자연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8. 원로원 광장(대성당)

1) 방문일시 : 2019. 8. 16.(목)

2) 주요내용

1830년에 착공되어 22년만인 1852년에 완공되었으며, 각종 국가의 종교 행사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광장 위편에는 카를 옹겔이 설계한 헬싱키 대성당이 있으며, 돔을 축으로 한 좌우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처음에는 중앙의 돔 하나뿐이었지만, 옹겔이 죽은 후에 다른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작은 돔이 네 귀퉁이에 덧붙여 졌다고 한다.

원로원 광장은 약 40만 개의 화강석이 깔린 조형미 있는 정사각형 광장으로 중앙에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상이 위치하고 있다.



9. 시벨리우스 공원

1) 방문일시 : 2019. 8. 16.(목)

2) 주요내용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다. 공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4톤의 강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그 옆의 시벨리우스 두상이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여류 조각가 엘라 힐투넨(Eila Hiltunen)이 1967년 시벨리우스 사후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이다. 은빛으로 빛나는 600개의 강철 파이프는 마치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기념비와 시벨리우스 두상은 공원의 상징물이자 헬싱키를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

시벨리우스는 조국 핀란드에 대한 사랑과 민족의식 고취를 주제로 한 곡들을 작곡해 핀란드인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은 작곡가이다. 특히 1899년에 작곡한 『핀란드아』는 러시아 지배를 받던 핀란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한 작품으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Ⅶ.

연수 결과 및 시사점

잠시 동안이지만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다.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연수단이 방문할 국가는 바이킹과 모험가의 나라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강국 스웨덴,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진복지”, “투명성”, “백야”, “오로라”, “빙하” 등 이었다. 그리고 연수단이 본 북유럽은 “노인 살기 좋은 나라”, “아이들을 위한 나라” “부자 아빠를 둔 나라”로 보였다.

북유럽 3개국은

1. 복지와 고용이 통합된 조직으로 구성

○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의무화 및 강화하고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어 각각의 역할 및 보장성이 확실함.

※ 즉, 고용 서비스는 상담, 이력관리,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 서비스의 내용과 관리가 확실하고 엄격함. 또한 복지서비스는 보장성이 확보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크지 않음.

2. 노동시장의 안정화 및 유연성 확보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노동시장

- 유럽의 복지는 안정된 노동시장으로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음.

- 따라서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등이 짧고, 임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체계가 탄탄한 구조임.

- 비정규직 차별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요인이 적기 때문에 3~5년 단위의 이직이 발생해도 급여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음.
 - 대부분 자신의 전문적 직종(position)에 따라 이직을 하게 됨으로 우리나라처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만 유연한 왜곡된 구조가 아님.

3. 좋은 행정 + 전문적 관료

- 상위정부는 가이드만 제공, 세부적 설계는 지방정부
 - 국가는 큰 거시적 틀, 주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설계와 제공을 책임짐.
 - 국가 차원에서는 전국민이 동일한 서비스를 위한 부분(예, 의료 분야)만 통합하여 관리하는 구조(별도의 보험청 등을 구성하여 일종의 독립행정기관처럼 관리)
- 공공인력의 선발 및 활용계획은 지방정부가 수립
 - 중앙정부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무원을 지방정부의 주관 하에 선발
 - 한국은 ‘계급제’ 인 반면, 방문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직위분류제형’에 가까운 구조.
 - 직위 분류제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적 역량에 따른 보상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 결정의 권한이 실무자에게 위임.

4.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복지서비스의 제공자가 대부분 공공인력(공무원)
 - 복지전달체계의 구조 내 행위자는 모두 공무원
 - 민간전달기관도 존재하나 공공기관과 서비스의 차이가 거의 없음.

○ 민간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기획

- 지역 단위의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할 경우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서비스구매계약 방식을 통해 서비스의 제공양, 질적 수준 등을 정부가 명확히 규명하여 제시한 후 민간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

☞ 반면, 한국은 제공기관에 대한 위탁계획과 절차만 수립할 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조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없는 구조임.

○ 찾아볼 수 없는 ‘민간자원연계체계’

- 최근 한국의 복지동향은 부족한 복지재원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방문 국가들에서는 소수의 자원봉사자 외 민간자원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음.

☞ 복지서비스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공공성 측면 강조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는 소득분배와 삶의 질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최상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이다.

또한,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 (20%)를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연수단이 본 복지선진국의 밑바탕은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구조, 검소한 생활습관, 가정 중심의 생활, 서두르지 않는 차분함, 세금납부 및 노후 연금에 대한 정부시책의 신뢰, 경쟁없는 평등교육 정책 등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별로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 중

노르웨이의 “드라이빙 타임” (4시간마다 45분 휴식, 1일 11시간 휴식, 6일 근로시 49시간 휴식)은 안전을 위한 기사들의 휴식제도이고,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초,중,고를 총 13년을 다니는데 고3 이후 1년은 본인이 대학을 갈건지, 취업을 할 건지 고민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것, 사생활을 위해 CCTV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실력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자연공동사용법”이 있어 주인이 있어도 누구나 산에 들어가 채취할 수 있다는 것, “햇빛여행”이라해서 햇빛부족시 발생하는 우울증, 피부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진단서 제출시 치료차 해안으로 놀러갈 경우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고 한다.

핀란드는 0~2세 아이를 받아주는 보육시설이 없다고 한다. 그 나이에는 당연히 부모가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는 생각 등 아이 입장에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 나라였다.

부러워야만 하는가 ?

조미수 의장

특별히 이번 선진지 견학은 기존과 달리 새롭게 기획하였다. 경기도중부권9개시의회의장 협의회 중 광명시의회, 의왕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장이 여러 번 사전모임을 하여 각 시의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공유하고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개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국외 연수를 촘촘하게 계획하였다. 이번 연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인권·교육·사회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정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였다.

각 의회별로 주요 관심 분야를 심층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여 광명시의회 참가자들도 선진지 견학의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하여 사전모임을 가졌다. 그러던 중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으로 인해 국외연수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이내 다시 역할을 분담하여 내용이 충실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였다.

말로만 들었던 북유럽 사회복지의 첫 인상은 안정화 된 느낌이었다. 정말 너무나도 여유로웠다. 부러울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인구의 1/10 또는 1/20 정도 되는 인구임에 불구하고 땅의 면적은 2~3배 정도 되는 국가들이었다.

기후 면에서 여름 날씨는 최고 20도 이상을 넘지 않으며 겨울에는 0도 이하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 북위 58~72°의 고위도에 있지만 서쪽 연안은 북극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난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겨울에도 바다가 어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기후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적도 부근에서 흘러오는 따뜻한 해류인 멕시코 난류가 미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유럽 연안에 이르러 북대서양 해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해류가 스칸디나비아 서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온난한 기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오래 전 빙하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덮쳐 바다와 호수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세 나라의 자연환경은 매우 멋있었다.

여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를 연상하는 그런 날씨였다. 다만 여름에는 백야 현상으로 저녁 10시가 되어도 겨우 어둑어둑할 정도이며 겨울에는 너무나 긴 밤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한다. 특히 햇빛을 보고 찾아다니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생활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식사하고 음료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지하자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석유 철, 구리, 목재류 등 풍부한 지하자원은 이들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들 또한 언제나 부유한 역사를 지내온 것은 아니다. 모두 알고 있지만 북유럽인들은 약탈을 생계로 삼는 바이킹의 후손들이다. 또한 그들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그들만의 힘을 견고하게 다졌고 이를 통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지가 튼튼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발달하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의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는 빙하 관광을 주요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라로, 사진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멋진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관광업과 수산업이 발달한 노르웨이는 석유산유국이기도하여 GDP가 7만 5천5백 달러로 대한민국의 GDP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아쉽지만 이는 멀리에서나마 볼 수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는 비영리단체인 키르게시비미션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였다. 상임이사의 설명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제일 먼저다.’라는 휴머니즘 중심의 메시지였다. 즉 인간은 동료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비영리단체 키르게시비미션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고 한다.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방적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반대로 제안을 받아 실행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하였다. 1990년대부터 광역자치단체인 스톡홀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뱌링구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으로 174개 가구가 요양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에 맞게 룸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 이는 개인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요양시설과는 사뭇 달랐다. 우리는 한 룸에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씩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우리가 방문한 노인요양원은 각각의 독방을 이용하고 조리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가족들이 방문하면 함께 잘 수도 있고 음식도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선진국형 노인요양시설이었다. 한편 많은 특징 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1960년대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래를 앞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매우 놀라웠다.

핀란드에서는 우시마주의 에스포시 직원을 만나 가족복지와 가정폭력 관련 상담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에스포시 도시공사의 도시재생팀 담당자를 만나 도시재생 성공사례인 도시를 라운딩하는 행운도 얻었다. 핀란드 복지는 가족복지나 가정폭력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복지가 중심이 되었다. 가족 관련 사회복지사는 일반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며 각종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가족복지의 중심은 보통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우리처럼 복지센터 등 건축물 설립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적 복지가 아닌 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었다. 가장 놀

라운 점은 육아휴직 등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만24개월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핀란드가 정말 사람을 중심하는 나라이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버려진 항구도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여 스마트 도시 및 생태 도시로 재생한 우수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도시 재생 모델과는 다소 다른 점 있었는데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강조하여 아파트, 빌딩 등의 모습이 각기 달랐으며 지역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세 국가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민국 도서관과 달리 북유럽 도서관들은 대체로 개방적이며 어마어마한 장서와 오래된 고전들이 비치되어 있어 해당 도서관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북유럽의 도서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를 찾는 곳, 책을 읽는 곳, 사람을 만나는 곳, 쉬는 곳,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힘든 도서관 모델이었다. 하나의 도서관 안에 어르신, 일반 성인, 청소년, 아동 등 모든 계층이 함께 존재하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다른 민족과 함께하는 공간도 있었다. 우리나라였다면 시끄러워서 책을 볼 수가 없다고 항의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칸막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 불편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조적으로는 3개국 모두 5층 정도의 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확 트인 공간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번 공무국외 연수를 통하여 느낀 것 중 인상적이었던 점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국가들이 1회용품을 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 도로 건설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다. 복지 분야도 사람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그들 스스로가 충족하고 책임지는 복지체계가 인상적이었다. 광명시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43%가 복지예산이다. 이 복지예산은 일반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경로당 개보수, 어린이집 신축 등이 함께 포함되며 각종 자산 취득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건축 사업비, 자산 취득비 등은 북유럽 3개국에서는 많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점심식사 중 우연히 레스토랑 옆 초등학교가 있어서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운동장이 없이 건물만 있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운동장 없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다. 반면 세계적으로 복지가 선진화되어 있는 북유럽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복지사업이 추진되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드웨어적 사업 부분은 곳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앉아서 쉬고, 책 읽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구나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 구축,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런 나라였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단순히 무상이 아니라 개인들의 보수의 50%를 세금으로 내어 사회보장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북유럽 국민들을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자랑스럽게 여겼다.

또한 몇몇 화장실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남녀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별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남녀평등이 아닌가? 물론 대한민국과 문화가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복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차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으로 개인을 존중하고 공적인 영역 부분에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나라. 여성의 90%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후 만 2년은 꼭 부모가 양육을 하는 나라. 자유와 평등과 책임이 있는 나라. 말로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실제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나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연구해보고 집행부와 논의해보려 한다. 또한 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도서관장들과 간담회를 만들어 볼 계획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실행해 보도록 하겠다.

공 무 출 장 보 고 서

이형덕 부의장

광명시의회와 의왕시의회 연합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도서관 등, 시설들을 방문하고 선진국가의 문화와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르웨이]

높은 곳에 위치 한 집이 더 비싸다. 처음에는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언덕을 배경 삼은 마을 마을은 액자 속의 그림 같았다. 가공하지 않은 거대한 천해의 자연, 빙하와 피요르드로 이어진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거대한 땅, 바로 옆에서 빙하가 흐르고 여름이 공존하는 노르웨이는 참으로 운택한 경제도시이다.

사회복지기관으로 가장 먼저 오슬로의 도시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미션을 방문하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를 위한 방’**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개방적인 비영리단체로 자원봉사, 후원, 교육, 지원,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문화·난민, 여성·집 없는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알코올·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의료적 치료보다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매우 공감 이 갔다.

개방형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누구나 차와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인분의 식대를 후원하는 작은 나눔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아닐는지. 음식조리나 서빙하는 모두가 생업이 있고 식대, 교통비 등의 경비를 자부담하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다.

시민들이 존중과 정의, 돌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곳 비미션은 직원이 단 2명으로 자원봉사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 하지만 일년 계약의 정기적인 봉사자들의 덕분에 비미션의 비전이 사회와의 약속을 실천해 가고 있다. 계획적인 봉사활동과 소소한 나눔, 지역에서도 시동을 걸어 볼만 하지 않은가.

개방형 유치원에서는 하루 5,0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0~3세의 아동과 부모가 함께 휴식과 정보교류를, 다문화·난민가정의 아동·청소년(4~16세)들에게는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화활동을 지원한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바보는 한사람도 없다’는 가이드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위해 1년을 탐색한다. 무상교육이라고 무조건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사회적 환경에 성별·학벌과 상관없는 수평적인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이직률이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 미래의 교육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대학진학과 취업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과는 거리가 먼, 그 시·공간적 여유를 노르웨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으로 복지국가의 역량을 키워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그 넓은 국토에 운동장이 없는 초등학교라니..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스웨덴]

스웨덴은 우리에게 이케아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의 제1 광공업국이다.

노인복지가 발달되었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로당과 유사한 시설도 찾을 수가 없었고 노르웨이와 달리 자원봉사자라는 개념도 없었다.

세계 제1의 복지국가를 자처하고 식량과 주택, 기본생필품의 최저생활보장
국가예산 30% 이상이 사회복지예산

스톡홀름 벨링구의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였다.

노인요양원은 16개의 아파트로 8개는 치매환자 8개는 외상 등,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이 단기간 치료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다.

아파트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간의 사생활이 보장된다. 외상환자를 위한 이동보조기구(PERSONAL LIFT)가 설치된 방도 있었고, 침실천정에 리프트 레일이 설치된 방은 침대와 주방 등, 공간 내에서 간단한 움직임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자존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리프트 시설은 질병정도에 따라 가벼운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병실에서도 바로 접목이 가능할 수 있어 보였다.

위와 같은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사회복지사·지자체·간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장기간 입소를 원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을 기준으로 협의체의 인증 후 가능하며, 이러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모든 비용은 벨링비 구에서 해결한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선도적인 사업으로 치매센타와 요양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형 복지모델을 따라 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선진국형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준비해 가야 한다.

[핀란드]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웨덴으로부터 북유럽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

40%가 넘는 높은 조세를 재원으로 기본적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보편적 노르딕 복지가 특징이며, 세금부담이 크긴 하지만 복지혜택으로 되돌려 받으므로 빈부의 차에 무관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전 국민에게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실업, 질병, 사회보험, 자녀·육아수당,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와 보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공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에스포시티 가족사회부서를 방문하여 가족복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에스포시 가족복지 서비스는 3개 부분으로 **아동보호법, 아동폭력과 가족정책**, 저소득 및 이혼가정과 같은 요보호 가족의 일상생활을 케어하는 **가족소셜워크** 등,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특수아동에서부터 일반아동에 이르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며 모든 정책을 수립 할 때는 아이중심으로 아동의 욕구, 부모의 능력, 주변 환경 등 다면검토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있음은 매우 인상적이다.

아동복지에 아이를 중심으로 학교와 보건소, 아동보호상담소, 아동가족복지부, 아동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문제해결에 함께하고 대상이 되는 가족마다 1명의 전담사가 지정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아동들의 보육은 국가책임이라는 핀란드의 아동 복지정책은 80%에 가까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부부갈등, 이혼문제로 아동보육을 기피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한다. 출산율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꼭 배우고 풀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다.

마무리하며....

북유럽 3개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역시 풍부한 무공해 자연자원과 오래 된 역사적 유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복지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르웨이의 국가보험제도

(고령연금, 가족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질병보험, 재활수당 출산휴가, 영유아수당, 입양시 육아휴가, 자녀수당, 편부모수당, 입양수당, 장례보조금)

* 스웨덴의 사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신연금제도(소득연동 차등연금제), 노인복지, 노동정책

* 핀란드 (출산,아동,보육,교육, 기초사회보장, 의료복지, 연금복지, 노인복지)

풍부한 자연자원에서 얻는 북유럽의 경제적 재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따라 갈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며, 기타 자원 없이 실현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 비미션의 복지정책이나 구리고덴 노인요양원의 리프트 시설 등은 접목해 볼만하며, 에스포시티의 아동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스웨덴의 아파트와 유사한 사례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시설을 시도하고 있다.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선진 복지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복지의 전달체계도 변화하여 우리 재정여건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고, 서비스 정책의 결정에 이해자를 함께 포함시킴으로 서비스의 낭비를 막고 적절한 서비스의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북유럽 3개국 비교시찰 보고서

한 주 원 의원

상생, 동반성장,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최저시급, 기본수당,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 이런 등등의 단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복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나는 1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이나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시도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 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복지의 대상자들은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내색을 공공연히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알기 힘들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국으로 방문한 북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 복지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약속되어 방문한 복지시설을 둘러보며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아가는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방문국은 노르웨이이다. 나는 노르웨이에 대해 무엇을 상상하고 간 것일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내내 깨끗한 환경에 감탄했고 소나 양들이 길가에 즐비한 블루베리를 따먹다가 차도에서 쉬고 있어도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일은 없다. 쉬고 있는 동물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오히려 차가 비켜서 돌아가는 서로 공존하는 문화에 놀라고, 수려한 대자연의 경관이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놀랐다. 노르웨이는 전 국토의 3%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며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웠던 전통문화를 가져서인지 이들의 식탁엔 감자가 주식처럼 올라온다. 이런 노르웨이에 다행스럽게도 70년대에 북해에서 유전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은 손꼽히는 석유 수출국이 되었으며 면적32만 제곱키로미터에 비하여 인구가 5,359백만으로 적어 현재는 5개의 북유럽 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진다. 1인당 GNP는 82,372달러로 우리보다 높다. 노르웨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보험제도를 운영하며 GDP의 절반이상을 공공지출에 사용할 만큼 재분배를 통한 평등을 실현하는 복지천국을 만들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가 베르겐사회복지기관이다. 이곳은 비영리단체로 마약중독, 알콜중독, 지나친 흡연, 강간, 매춘, 그리고 이민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으로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자녀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꾸준한 상담과 교육과 치료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들을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베르겐 비미션에서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1명이 먹고 2명의 식비를 지불하는 곳인데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계산을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운영비 부분은 정부보조금과 민간후원 7:3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실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미션 레스토랑에는 12명이 일하는데 그 중 2명만 직원이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서빙을 하는 부분들은 10명의 자원봉사자가 도맡아 하고 있어 식당운영 관련하여 인건비 부담이 없으므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이 있음에도 미리 예약하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현업을 가진 분들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다고 한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관련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며 본인들도 소속감이 높아 봉사 만족도는 높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봉사자들이 봉사의 댓가로 점심을 제공받지도 않으며, 교통비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봉사를 이유로 1박 2일 등의 워크샵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시립주차장등의 요금혜택도 당연히 없으며, 성인들이 봉사시간을 가져가지도 않으며, 유니폼도 스스로 준비하여 마련 하는 등 자원봉사는 단어 그대로 자원봉사로서 아무런 댓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봉사인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학입학시 봉사시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취업 시 봉사경험을 자소서에서 표현하는 정도라고 하니 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더 줘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와는 개념차이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방문국은 스웨덴이다. GNP는 5만 3,876달러로 우리보다 높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케아,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이며 GDP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은 편이며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이면서도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화폐인 크로나를 쓴다. 스웨덴은 철광석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북유럽 제 1의 광공업국이다.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활발하여 제품 수출량도 큰 편이다.

스웨덴은 식량, 주택, 기본생필품 등에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질병이나 실업 등의 고통에 처할 경우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주택보조금, 학업수당, 자녀수당, 교육비보조비등의 사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 연금제도도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 아동연금, 적응연금, 미망인 연금 등이 발달되어 향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지거나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시 에도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연금제도가 탄탄하다. 이 외에도 노인, 주택, 가족, 의료, 노동에 따른 정책 등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정책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잘 실현되고 있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말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스웨덴은 국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 1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할 만큼 복지재정 비율이 높은 세계최고의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

이런 스웨덴의 복지를 살펴보고자 우리는 스토라 스콘달이라는 노인 요양원을 예약 방문했다. 이곳은 2013년에 지은 치매시설로 개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보였다. 시설의 입소결정은 지자체 공무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단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입소비용은 개인의 연금으로 충당하며 간호사, 치료사, 운영관리자가 24시간 상시 근무한다. 그들의 고용비용은 지자체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스토라스콘달 요양원은 주거시설이 눈에 띄는데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매치료를 위해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외상치료를 위한 노인을 대상으로 2주 정도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외상환자의 경우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각 침실의 천정에 리프트 형태로 이동보조기구를 설치하여 외상환자가 침대와 주방까지 어느 정도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점은 환자의 치료를 돕는 도우미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보여 졌다. 단기치료가 아닌 요양원 입소자의 경우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 각자의 개인공간은 원룸형태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요양시설에 개인룸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공동공간에서 식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개인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점은 아주 특별 했다. 우리나라 요양원 가족들에게 간혹 들을 수 있는 치매환자의 결박이나 감금, 폐쇄 등은 스웨덴에서는 인권 침해 사항으로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한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치매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니 복지국가답다.

우리는 또 다른 일정지로 스웨덴의 에스포시티를 방문했다. 시청의 가족사회과 직원이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곳은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의 욕구, 부모의 경제능력, 아동의 주변 환경을 아동을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아동복지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전담 업무팀이 가동되어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보육에 있어서 부모가 상담이 필요함에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성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세 번째 방문국은 핀란드다. 핀란드 헬싱키의 ‘오디’중앙도서관을 견학했다. 핀란드는 1159년부터 650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다가 프랑스와 러시아의 협약에 의해 1809년부터 108년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 12. 6. 러시아로부터 독립했다. 약 20년전에 국제공모전을 통해 건축하여 2018. 12.5. 개관한 도서관이 있는데 헬싱키 ‘오디’ 중앙도서관이다. 오디는 ‘국가와 국민이 받은 백살 생일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눈 쌓인 거대한 배형상을 한 이 도서관은 9천 8백만 유로(약 1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되었다. 거대한 복합문화공간인 이 도서관은 3층 건물이다. 이 도서관은 핀란드 사람들이 도서관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1층은 카페, 레스토랑, 시네마, 정보검색실등이 있고 2층에는 음악실 스튜디오, 미디어 룸, 자유롭게 널려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는 휴게공간 3D프린터, 개봉틀실, 워크샵 공간 등이 있다. 나는 도서관을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의 정숙표 도서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어서 흥미로운 생각으로 내부

관람을 시작했다. 2층에 오르자마자 3D 프린터기 5대가 놓여있고 그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크고작은 입체물을 자연스럽게 복사하여 실물을 실현해내고 있는 모습은 이곳 2층이 도서관의 창조의 공간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나는 3D 프린터기를 삼성동 코엑스와 일산 킨덱스에서 몇 번 본 일이 있으나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작업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은 처음 본 것이어서 몇 번이나 그 주위를 돌아보고 또 돌아볼 정도로 부러운 모습이었다. 아주 특별한 광경은 3D 프린터기가 있는 바로 옆에 12명 정도가 재봉틀로 디자인된 의상을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처럼 보였다. 도서관이 학습하고 연구하고 궁금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현해 보는 창조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 옆에는 대학 강당처럼 의자가 총총히 배열된 워크숍 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은 닫아야 할 출입문이 따로 없어보였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이곳은 우리들이 방문하는 그 날도 청년창업자가 강단에 서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화면에 몰입한 듯 집중하고 있었다. 3층은 무려 10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칸막이가 없는 탁 트인 넓은 공간으로 밝으면서도 아늑하고 포근하다. 큰소리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마침 어느 유치원에서 단체로 공부를 하러 온 듯 아이들이 학습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도란도란 자연스럽다. 우리나라도 교보문고나 세종시의 도서관, 수원의 한 도서관등에서 이미 정숙만을 요구하는 숨막히는 독서실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시도 지역의 거점도서관에서 독서실을 없애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 하안도서관의 리모델링 계획이나 평생학습원의 웃고 떠드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진사회의 개방형 도서관 형태를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대해 볼 일이다. 이상으로 3개 방문국 중 기억에 남는 몇 곳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핀란드, 덴마크, 아리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북유럽국가라고 하는데 이 5개 나라는 복지의 천국, 복지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복지가 잘 되어있다.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의 바탕은 대부분이 평균 소득세의 약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높은 재원을 근거로 하는데 이 지역의 국민들은 세금납부 의무에 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생산인구시절에 구축된 권리를 노년에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눈여겨 볼 만한 점은 복지서비스의 결정권이 복지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조건이 같은 대상자에게도 개개인의 다른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인권유린이 우려되는 점은 법 규정과 직원들의 올바른 인식으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꺼려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케어를 받고 있는 점은 우리도 시도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북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제도, 연금제도, 주거정책, 가족폭력정책, 그리고 도서관의 평생학습 구현의 기능 확산문제는 우리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일이다.

이번에 북유럽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를 통해 민주사회주의에 대해 새로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 구 소련을 비롯한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등 공산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원리를 추구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몰락하거나 위축되었다. 북유럽 3개국을 더불어 살기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노년과 약자들에게 생산된 것의 분배와 공유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북유럽국가를 복지 천국이면서 생활수준도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평등, 경제적 번영은 내가 냈던 세금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재의 높은 세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우리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구현해내고 있지만 우리시의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적 측면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우리시에 어떤 점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북유럽 복지선진지를 견학하는 내내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며 분배와 공유라는 그 귀중한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